

“ 26년간 본분 충실에 대한 선물 ”

28회 에너지절약추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 박정미 기자(psn0304@yahoo.co.kr)

“가르쳤던 후배들이 지금 팀장이 돼서

활약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람도 느끼고 세월도 느낍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원갑 자금지원실장이 지난 11월 8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8회 에너지절약추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오는 12월 31일은 26년간 몸담아온 공단을 정년퇴직하는 날이기도 하다.

“고생했다고 주는 상인가 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26년 동안 한눈 팔지않고 근면, 성실하게 직분에 임해온 것은 자부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인가요?”(웃음)

처음 인터뷰를 요청할 때도 “이제 퇴직하는 사람인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라며 한사코 만류하더니 수상소감에 대해 겸손한 답변이 돌아왔다.

80년 에너지관리공단 1기로 입사한 이 실장은 진단 업무를 시작으로 97년 대구지사장, 2000년 강원지사장, 2004년 서울지사장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자금지원실장을 맡았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2차석유파동이 막 끝난 뒤라 진단업무가 활발했어요. 1년 365일 중 200일 이상은 전국으로 출장이 다녔으니까. 특히 당시 기업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기술수준이 미진해 기술보급차원에서 많이 다녔지요. 그때 가르쳤던 후배들이 지금 팀장이 돼서 활약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람도 느끼고 세월도 느낍니다.”

이 실장은 진단업무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 R&D, 에너지 자발적협약 등의 업무를 통해 고효율에너지시스템 사회로의 이행에 공을 세웠다.

“에너지는 교육홍보를 통해 아껴쓰도록 인내력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효율기기를 통해 근본적으로 절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실장은 ESCO가 고효율기술개발을 보급하는 수단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32W형광등과 전자식안정기가 신뢰성을 검증받고 보급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것은 ESCO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처음 정부주도로 40W에서 32W를 개발할 때 이것을 많이 보급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였는데 ESCO가 그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92년 ESCO제도 시행부터 제도가 정착화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에너지절약도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이것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켰습니다.”

이렇게 ESCO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 실장은 전망도 밝게 보고 있다.

“초기 조명위주로 시작해서 아파트 소형열병합발전을 통해 ESCO를 대중화시켰고 지금은 산업체의 대규모 공정개선으로 확대 발전됐습니다. 특히 몇몇 기업들은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끝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어 향후 ESCO의 앞날은 밝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장은 올해 논란이 됐던 대·중소기업 지원 비율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ESCO는 기술로 승부해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비율은 30 대 70으로 했다가 대기업사업이 위축돼 ESCO업무가 상당히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e